

# Open Doors

2018. 9. Vol. 197

**박해와 선교현장**

**이라크 Iraq**

Yellow ID

TAL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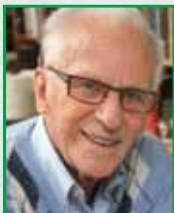
@opendoors를 검색하거나

QR코드를 스캔하여 친구추가 하세요.



**OpenDoors**

Serving persecuted Christians worldwide



## 오늘날 하나님께 구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브라더 앤드류(오픈도어 설립자)

몇 년 전 한 여성 기자가 나에게 익숙하고도 생각을 불러일으키는 질문을 했다.

“당신이 24시간 후에 죽는다면, 이 세상 마지막 날을 어떻게 보내시겠습니까?”

그 질문을 받고 나는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매일 산다면, 언젠가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겠지!”라고 말한 친구 생각이 나서 미소를 지었다. 그것은 중요하고도 좋은 질문이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질문을 자신에게 정기적으로 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겨우 하루라는 시간 속에 모든 중요한 일을 압착시켜 넣어야 한다면,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고 또 어떻게 재조정할 것인가? 무슨 일을 할 것인가? 어디를 갈 것이며, 귀한 마지막 시간을 누구와 함께 보낼 것인가? 더구나,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우리를 위해서뿐 아니라 우리 없이 살아갈 사랑하는 사람들과 세상을 위하여 하나님께 무엇을 해 달라고 할 것인가? 하나님께 어떤 일에 대한 뜻을 돌이켜 달라고 구할 것인가?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까운 이 마지막 때에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를 결정하기 위하여 이러한 질문으로 시작해 보는 것도 좋을 것이다. 우리는 순간을 위해서 사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의 비전과 기도가 제한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사용하는 시간은 지금이다”라는 격언에는 상당한 진리가 들어 있다. 성경이 말하듯이 “지금은 구원의 날”(고후6:2)이다. 그러나 기도가 시간과 공간의 한계를 초월한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사실이다. 우리는 지금 기도할지라도, 그 파문은 계속 퍼져 나갈 수 있는 것이다.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방식으로, 우리의 기도는 영원히 남아서 무덤을 넘어 미래의 삶과 사건을 변화시킬 수 있다. 알든지 모르든지 간에, 우리는 대부분 우리가 태어나기 훨씬 전에 이 세상을 떠난 사람들의 기도의 덕을 본 사람들이다. 신실하

게 중보기도를 했으나 응답되는 것을 보지 못하고 죽은 사람들. 그 기도의 직접적인 결과로 역사는 이 세상 전역에서 날마다 변화되고 있다고 말해도 좋을 것이다. 히브리서에 기록된 믿음의 영웅들처럼 “이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히 11:39)이다.

불가지론을 믿는 가정에서 자라난 한 친구가 자신의 그리스도인 할머니에 대하여 말한 적이 있다. 그는 할머니를 전혀 알지 못했다. 할머니는 그가 태어나기 몇 달 전에 죽었기 때문이다. 그 친구는 복음도 듣지 못했고 그리스도인을 한 사람도 알지 못했는데, 학창시절 학교에 있는 성경을 읽다가 그리스도께 돌아오게 되었다. 몇 년이 지나 그가 사역에 참여한 후 한 여성이 보낸 편지를 받았다. 그녀는 할머니가 죽기 전 수년 동안 할머니와 친분을 갖고 지내면서 함께 기도했던 사람이었다. 그녀는 “네가 태어나는 것을 보지 못하고 죽을 것을 알게 된 네 할머니는 너의 구원을 위해 함께 기도로 도와 달라고 하셨단다”라고 썼다. 할머니가 죽은 지 거의 15년 후 그 기도는 응답된 것이다. 그 이후로 그 기도의 파문은 계속되어 그 가정의 다른 가족들도 주님을 알게 되었다.







**04** 북한 선교 현장\_나의 출애굽기Ⅳ

**06** 박해와 선교 현장 이라크-Iraq

**14** 2018년 어린이 박해 지도 신청해주세요.

**16** 오픈도어 사역

교육개발사역 : 미얀마(Myanmar)

**18** 오픈도어 뉴스

박해뉴스: 말리(Mali)

**20** 북한 사역자 모집

**21** 오픈도어 박해 퍼즐

**22** 오픈도어 지역 모임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23** 2018, 시리아에 희망을

**OpenDoors** 2018년 9월호 | 통권 197호 | 등록번호-성북 라 00066

공동대표\_김성태 교수(국제관계), 신현필 목사(개발사역)  
 이사장\_김성태 교수  
 부이사장\_김명재, 김영복 목사  
 이사회\_서창원, 노창영, 김영우, 박종배, 최홍규, 김성곤,  
 박윤환, 오정호, 이동현, 배춘섭, 양성찬, 김윤태 목사  
 사무총장\_이종만 목사  
 정보/행정/재정\_정규일, 오현정 간사  
 북한선교\_제나, 이다니엘, 루나, 리디아, 나오미 간사  
 발행처\_한국오픈도어선교회  
 02857 서울시 성북구 안암로 9길 10 영성빌딩 4층  
 Tel. (02)596-3171 / 070-7522-3171  
 이메일: odsk@opendoors.or.kr

편집\_정규일 목사

오픈도어는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도서잡지 윤리강령 및  
 잡지윤리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후 원 계 좌 〉

라틴아메리카: KEB하나은행 630-007636-461

중양아시아: 우리은행 1005-201-884969

중동(걸프 포함): 우리은행 1005-701-884976

아프리카: 우리은행 1005-901-884982

아시아: 우리은행 1005-901-884970

북한: KB국민은행 029301-04-169183

희망의선물: 신한은행 100-027-453994

오픈도어선교회: KB국민은행 029301-04-167093

시리아예희망을: 우리은행 163-099071-02-101 (김성태)

순교자 자녀와 미망인: 신한은행 100-027-219169

가족트라우마: 우리은행 1005-001-884989

예 금 주 : 한국오픈도어선교회

# 나의 출애굽기 IV

드보라

대학 생활 중에 가장 중요했던 일이라고 한다면 남편을 만난 것이었다. 그 당시 우리집은 꽤 살림살이가 괜찮았다. 집에서 술도 만들어 이웃에게 팔기도 했다. 옆집 아주마는 우리 집에 술 받으러 자주 오셨었는데 오실 때마다 나에게 자기 시동생을 소개시켜주고 싶다고 하셨다. 그렇지만 나는 그리 귀담아듣지 않고 웃어넘기곤 했다. 그런데 하루는 아주머니가 억지로 심부름 거리를 만들어서 나를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가셨다. 가보니 이웃집의 가족분들이 모여있는데 그 중 눈에 띄는 청년이 한 명 있었다. 까까머리의 흰칠한 청년이었다. 아주머니는 그 청년과 가족들에게 나를 소개하셨다. 심부름을 마치고 집에 가려는데 그 청년이 문을 열고 나와서는 씩씩하게 인사를 했다. 아주 우렁찬 목소리였다. 알고보니 아직 군복무 중인데 휴가를 나왔다고 했다. 그 당시 연애와 결혼 문화 풍토에서 자유 연애는 매우 생소한 것이었고 이렇게 이성을 직접 소개받는 일은 처음이었기에 나는 이런 분위기가 너무 어색했지만 씩씩한 청년의 모습이 싫지만은 않았다. 나중에 첫 만남 때 어땠냐고 물어봤더니 첫 인상이 매우 여자답다 생각했다고 한다. 그 청년은 아직 군 복무

가 남았기에 부대로 복귀를 했지만, 곧 편지를 보내기 시작했다. 생전 처음 이성으로부터 편지를 받는 기분은 참 묘했다. 청년은 자기가 몇 년만 지나면 재대니까 꼭 기다려달라 했다. 그 당시 갓 20대가 된 내 가슴은 뼉스레 쿵닥쿵닥 거렸다.

그렇게 편지를 주고받는 와중에 시간은 흐르고 나는 대학을 졸업하였다. 졸업하고 유치원에 배치를 받아야 하는데 하필 빈 자리가 없어서 동네 농장 유치원으로 배치를 받았다. 그렇게 시골 농장 유치원에서 교사로 있는데 갑자기 남자한테 연락이 왔다. 예정보다 빨리 제대가 됐다고 했다. 나중에 알고 보니 나를 소개시켜줬던 그 남자의 형수가 이제 대학도 졸업하고 다른 집에서 며느리 감으로 눈독 드릴 텐데 돈을 쓰더라도 빨리 제대를 하라 해서 우여곡절 끝에 제대를 한 것이다. 그 당시 결혼은 남녀간의 일대일의 연애사라기 보다는 가족과 부모 사이의 일이었다. 아버지는 우리의 연애 사실을 모르고 계시다가 나중에 아셨다. 평소에 그 남자를 씩씩하고 바른 청년이라고 좋아는 하셨지만 공교롭게도 그 집은 대대로 남자들이 술을 너무 좋아하는





집이었다. 당장 그 남자의 형도 거의 알코올 중독 수준이었다. 그러다 보니 아버지는 옆집 사람에 대한 신뢰가 없으셨고, 그 청년도 사위로는 생각하지 않으셨다.

그런데 내가 아버지께 말씀 드리기도 전에 아버지는 우리가 연애하는 것을 알게 되셨다. 주고받았던 편지가 들킨 것이다. 아버지는 불같이 화를 내셨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그 집 사람들에 대한 믿음이 없으셨던 것도 있지만 언니보다 내가 먼저 결혼하려고 하는 것을 아버지는 매우 못마땅해 하셨다. 그 당시 언니는 대학을 못간 대신 5과 대상이라고 해서 국가에서 뽑혀갔다. 5과는 소위 말하는 얼굴이 반반한 여자들을 국가에서 뽑아서 위문이나 서비스 업에 배치하는 것이다. 외국 사람 접대나 군대 위문공연 같은 일을 하고 소위 말하는 기쁨조도 5과에서 선발된다. 언니는 5과 선발 자원으로 선택이 돼서 농촌 동원도 안당하고 특별 관리 받았다. 그 당시 우리는 5과가 어떤 곳인지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고 국가에서 특별하게 선발된 언니를 부러워했다. 언니는 그렇게 평양으로 불려가서는 한동안 소식이 없었다가 나중에 지방에 어느 군부대 인근으로 발령받았다고 알려왔다. 군부대 위문 공연을 다녔다고 한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 와중에 무슨 봉변이라도 당하지 않았는지 걱정이 된다. 그나마 지방으로 배치된 것이 다행한 일인지도 모른다. 여튼 언니가 5과에서 제대 되기 전에 동생이 먼저 결혼하게 생겼으니 아버지의 평소 가치관으로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다.

이런 상황인데도 그 청년이 옆집에 살다 보니 아버지는 청년 얼굴을 안볼래야 안볼수가 없으셨다. 그리고 만날 때 마다 씩씩하고 우렁차게 인사를 하는 그이에

게 아버지는 이전같으면 하지 못할 욕을 막 하시기 시작했다. 그래도 곳곳이 웃으며 인사하던 그이도 참 굳센 사람이었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 그렇지만 이런 상황이 언제까지 계속될 수는 없는 일이었다. 결국 그이는 결혼을 하기 위해 정면돌파를 시도했다. 헤어지라는 우리 아버지의 말에 그이는 헤어지느니 차라리 양젓물을 먹고 죽겠다 하며 아버지 보는 앞에서 난리를 쳤다. 평소엔 씩씩하고 바른 모습만 보였던 청년이 저렇게 고집을 부리니 아버지는 처음에는 너무 황당해 하셨다.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 했던가... 이렇게 평행선을 달리던 상황은 결국 아버지의 허락으로 마무리되었다. 죽더라도 결혼해야겠다던 그이의 고집이 아버지의 마음을 움직인 것 같다. 결국은 나는 언니보다 먼저 결혼을 했다. (다음 호에 계속)





# 이라크 *Iraq*

-종교: 이슬람교 99%, 기독교 1%

-인구: 39,339,753명

-박해정도: 극심함

-수도: 바그다드(Baghdad)

-주 박해요소: 이슬람교의 탄압(Islamic oppression), 민족간 대립(Ethnic antagonism), 조직적 부패 및 범죄  
(Organized corruption and crime), 교권주의(Denominational protectionism)

2018년 기독교 박해 순위 보고서에서 이라크는 2017년도와 마찬가지로 86점을 기록하였다. 하지만 전체 나라 순위는 7위였던 작년에 비해, 한 단계 아래인 8위를 기록하였다. 이것은 다른 나라들의 점수 상승에 따른 것으로 보여진다. 더불어, 기독교인에 대한 압력을 나타내는 점수는 낮아지고, 폭력을 나타내는 점수는 상승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IS의 이라크 내 영토 상실 때문인 것으로 보여진다. 하지만, IS의 사상 자체는 이라크 사회에 깊이 침투하여 아직까지도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끼친다. 다시 고향으로 돌아온 기독교 가정들이 있는 반면, 박해와 불투명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으로 이주를 하는 기독교인들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라크 북부에 거주하는 기독교인들 사이에서는 쿠르드족의 분리 독립 투표의 결과가 이주에 대한 갈망을 크게 증폭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주류 기독교인들에 대한 폭력 행위는 주로 과격 이슬람 단체 혹은 개인들에 의해 발생하는 반면, 개종자들은 대부분의 경우 가족들로부터 폭력을 당한다.



# 이라크의 박해상황

## 1. 박해원인

**이슬람교의 탄압(Islamic oppression):** 과격 이슬람 단체는 종교 청소를 통해 이라크를 순수 이슬람 국가로 만들고자 한다. 2003년 미국의 이슬람 침공을 기점으로 반서구 및 반기독교 정서가 퍼지면서 이슬람 무장 단체와 반군에 의한 폭력 사태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정부의 무질서한 법 제도가 상황을 크게 악화시키고 있다. 더불어, 시리아 내전으로 인해 이라크 북쪽 및 서쪽 지역에서 급진적인 이슬람 단체가 급증하고 있다.

2014년 6월에 IS는 시리아와 이라크의 북쪽 및 서쪽의 IS 통치 지역을 칼리프 국가로 선언하였다. IS는 엄격한 이슬람 율법을 도입하였으며 대부분의 반기독교 폭력 사태의 주체였다. 그러나 2017년 말경 IS 통치 지역이 상당수 분해되었으며 IS가 저지른 잔혹한 범죄 행위들이 드러나게 되었다. 많은 수의 IS 대원들은 잠적한 것으로 전해지나, 이들은 여전히 종교적 소수자들에게 큰 위협으로 여겨지고 있다.

새로운 급진적인 이슬람 단체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는 전 알카에다 대원들로 구성된 것으로 알려진 호라산(Khorazan)이 있다. 이슬람 무장 단체의 영향으로 이라크 쿠르드자치정부 (KRG)와 같은 곳에서 이슬람이 끼치는 영향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지역 발전과 같은 의제에 큰 영향을 끼친다.

몇몇의 시아파 정당들은 이란과 비교적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이란의 이라크에 대한 영향력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이슬람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신자들은 이란-이라크 국경 지역에서 이란 정보 및 첩보 기관의 감시를 받는다. 이라크 사회가 전반적으로 이슬람화되고 있다고 보여진다. 여성에 대한 사회적 제약과 차별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히잡 착용과 라마단에 관한 규율에서 나타난다. 바그

다드(Baghdad)와 바스라(Basra)와 같은 지역에서는 기독교인 여성들도 안전한 이동을 위해서 외부에서의 히잡 착용이 강요되고 있으며, IS 통치 지역 내에서는 모든 여성들이 얼굴 전체를 가리는 스카프를 반드시 쓰도록 강요 받는다.

**종족간 대립(Ethnic antagonism):** 이라크 사회는 여전히 부족적인 모습을 보인다. 대개 정부의 법을 따르는 것보다 부족에 속해 있는 것이 더 중시된다. 부족 사회에서는 오랫동안 전해져 내려오는 관습과 가치, 사상이 사회 통제에 큰 영향을 미친다. 이런 부족주의가 이슬람이라는 종교를 만났을 때 이슬람 배경을 가진 기독교 개종자들이 큰 영향을 받는다. 특정 지역에서는 부족 세력이 정부 기관 및 정부 권한에 영향을 미치기까지 한다.

**구조적 부패 및 범죄(Organized corruption and crime):** 부정부패 또한 이라크 내 기독교인에 대한 박해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것은 불법적으로 기독교인 소유의 집과 땅을 압류하거나 기독교인들을 인질 삼은 후 요구하는 몸값을 통해서 알 수 있다. 한 NGO에 따르면 2003년부터 현재까지 이라크인 기독교인을 상대로 7,000건이 넘는 불법적인 압류가 발생했다고 한다. 특히 이라크를 떠난 기독교인들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불법적인 압류가 주로 이루어졌는데, 바그다드의 한 관료는 바그다드에 거주하는 기독교인들 중 약 70% 가량이 집을 불법적으로 압류 당했다고 전했다. 그들의 종교적 소수자들이라는 사회 내 취약한 위치를 이용한 것으로 보여진다. 부정부패는 이라크 사회 내에 깊숙이 뿌리 박혀 있는데, 상위 정치 세력까지도 부정부패에 관여한다. 이란의 지지를 얻은 이슬람 무장 단체를 포함한 정치 권력을 가진 세력들은 기독교인들의 집뿐만 아니라 교회와 수도원들을 점거한다.

**교권주의(Denominational protectionism):** 이라크 중남부 지역에서는 전통적인 교회에서 전통적이지 않은 기독교 종파로 옮기는 기독교인들은 가족 구성원과 부족 지도자 등으로부터의 반대와 위협을 당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직업과 재산 상속의 권리를 잃기도 하며 결혼을 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전통적 교회의 주교들은 복음주의 교회에 출석하는 신자의 결혼식에 가는 것을 거절하는 것으로 알려진다. 가족과 이웃들 또한 교단을 옮긴 신자들을 멀리하고 관계를 끊기도 한다.

## 2. 박해배경

IS와 같은 폭력적인 종교 집단과 급진적인 무장단체들은 기독교인들을 포함한 다양한 종교적 소수자들을 납치하거나 살해한다. 이슬람의 종교 지도자들 또한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는데 주로 모스크 사원에서의 혐오 발언들을 통해서 나타난다. 정부의 각계각층 관료들은 기독교인들을 위협하고 이주할 것을 권고한다. 일반 시민들도 공개적으로 기독교인들이 이라크 내에 거주하는 것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다. 부족 지도자들, 확대 가족 및 주변의 일반 시민들까지도 이슬람에서 개종한 기독교인들에게 심각한 압력을 가하는데, 개종자들에게 살해 위협을 가하기까지도 한다. 다원주의 사회를 이루는데 실패한 결과, 정치 정당들 또한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는데 일조한다. 기독교인들의 납치가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며, 그 배경에는 경제적, 종교적 동기들이 엉켜있다. 비교적 낮은 단계의 박해로는 전통적 교회의 지도자들이 신생 기독교 종파의 공식적 인정을 방해하는 것을 들 수 있다. 마지막으로, 유엔과 유엔난민기구와 같은 국제기구 및 큰 규모의 국제 NGO들이 기독교 난민 캠프를 돌보지 않거나, 기독교인 국내 실향민(IDP)을 집중적으로 돕는 다른 단체들의 활동을 승인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이라크 내 기독교인의 역사는 꽤나 오래되었다. 2017년도 중반 IS로부터 탈환한 이라크 제 2의 도시인 모술(Mosul)의 옛 이름이 바로 요나서에 등장하는 니느웨이다. 예로부터 기독교인들은 바그다드, 모술, 바스라와 같은 이라크 내 도시들에서 거주하였으며, 2003년

미국의 이라크 침공 직전까지 이라크는 중동에서 가장 큰 기독교 사회를 이루었던 나라였다. 기독교인들이 이 곳에서 약 2,0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거주하였으나, 최근 들어서는 그들의 자취를 찾아보기 어렵게 되었다. 이라크는 구조적 불확실성과 분쟁, 불안정을 겪었으며, 2014년 6월에는 이라크 서쪽과 북쪽 지방이 IS에게로 넘어가면서 IS가 그들의 칼리프국가로 부르고 있다. 현재 이라크 정부는 국내법을 시행하거나 집행할 수 없을 정도로 취약해졌으며 최소한의 안전 또한 시민들에게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부정부패가 크게 증가하였으며 종파갈등 또한 멈추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라크는 크게 두 지역으로 나뉘는데, 쿠르드 자치 정부(KRG)가 통치하는 에르빌(Erbil)을 거점으로 하는 북쪽의 쿠르드 자치구와, 바그다드의 이라크 정부가 통치하는 나머지 아랍 지역이 있다. 쿠르드인들과 아랍인들은 각자의 언어와 종교가 있다. 대부분의 기름은 쿠르드 자치구와 아랍 이라크의 경계 근처인 키르쿠크와 모술과 같은 도시에서 발견되며, 이 도시들은 이라크 내 가장 잔인한 격전지이기도 하다.



기독교인들은 이 지역에서 발생한 두 가지 형태의 분쟁 가운데 놓이게 되는데, 첫째는 쿠르드 독립을 위한 전쟁이고, 둘째는 IS를 포함한 이라크 내 이슬람 테러 집단들이 자행하는 종교 전쟁으로, 나라 전체를 이슬람화 시키고자 하는 종교 청소의 양상을 보인다.

하지만, 아직 희망적인 부분들도 있다. 2017년 말경 IS 통치 하에 있던 지역들의 대부분을 탈환하여 다시 이라크 정부의 통치 하에 놓이게 되었으며, 하이데르 알아바디 이라크 총리는 IS와의 전쟁을 종료하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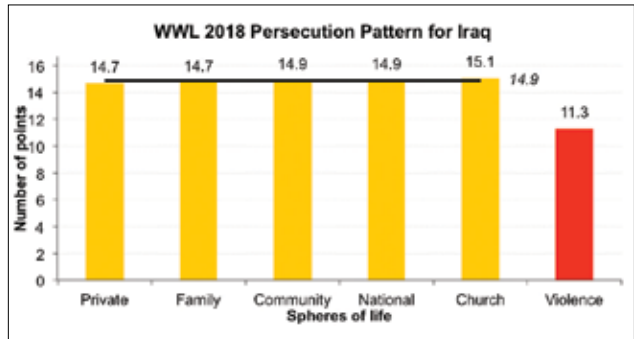
음을 선언하였다. 또한 북부 지방에서는 이슬람 배경을 가진 목사들 사이의 협력이 증가하고 있으며, 전통적 기독교 공동체와 기관들이 이라크와 시리아 내 IS 통치 지역에서 발생한 난민들에게 담요와 장난감을 나눠주는 등의 도움을 주기 시작하였다. 에르빌과 도후크(Dohuk)의 교회들 또한 수 천명의 국내 실향민 가정들에게 대규모의 인도주의적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이라크에서 박해를 받는 다른 종교적 소수자들로는 야지디족(Yazidis)과 카카족(Kaka), 세벤-만데나스족(Sabaeen Mandaean)이 있으며, 주로 이슬람이 아니라는 이유로 차별과 배척을 당한다. 특히 야지디족은 IS 통치 하에 많은 고초를 겪은 것으로 알려지는데, 여성과 여자 아이들이 성노예로 납치되었다. 현재까지도 3,500여명의 야지디 여성과 어린 여자 아이들이 실종 상태이며 아직 IS의 손에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

### 3. 각 영역에서의 박해 정도와 폭력

#### 이라크에 나타나고 있는 박해 유형

- 이라크 기독교인들이 받는 압박은 극도로 높은 수준이고(14.9), WWL 2017년에 보고된 WWL 15.2 보다는 감소했다. 극도로 높은 압력은 모든 삶의 영역에서 나타난다.
- 특히 개종자의 경우, 이슬람 탄압으로 인한 압력은 삶의 모든 5개의 영역 모두에 영향을 미친다.
- (이슬람 탄압과 혼합된) 종족간 대립은 가족 및 개인의 영역에서 가장 널리 퍼져 있다.
- 조직화된 부패와 범죄는 주로 지역 사회와 국가의 영역에서 나타난다.
- 교권주의는 특히 교회, 가정 및 사생활 영역에 영향을 미친다.

- 기독교인에 대한 폭력 수준은 2017년 WWL 10.4에서 상승하여 매우 높다(11.3). 이 같은 증가는 2018년 WWL 보고 기간에 3명의 기독교인이 살해되고, 2명의 기독교인이 (IS 구역에서) 억류되고, 1명의 기독교인이 (IS 구역에서) 처형을 당했고, 약 60명의 기독교인이 납치되거나 실종된 것이 반영되었다.
- WWL 2018 보고 기간에 이라크의 전반적인 박해 상황은 박해를 가해도 처벌을 받지 않고, 이슬람 무장 세력이 위협을 가하고 당국의 2등급 대우를 받았다.



#### 개인 영역

모든 기독교 개종자는 개인적인 신앙 생활을 하는데 큰 제한을 받는다. 그들은 공개적으로 기독교 신앙을 가르치거나 기독교 서적을 소유할 수 없다. 특히 IS가 장악하고 있는 지역뿐만 아니라 이라크 중부 및 남부 지역에서도 압력이 컸지만 쿠프드족자치구(KRG) 지역에서는 낮았다. WWL 2018 보고 기간이 진행되면서 IS 통제 구역에서 잡히는 기독교인이 줄어들었지만, 모든 기독교인은 심각한 제한을 받아 개인적으로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 예를 들어, 크게 소리 내어 찬양할 수 없다.



## 가족 영역

이슬람교에서 개종한 기독교인들은 가족에게 수치심을 주기 때문에 종종 자신의 기독교 신앙을 이슬람 가족들에게 숨겨야 한다. 그들은 가족들에게 위협 받고 버려질 위험에 처한다. IS 통제 구역에서 모든 기독교 가정의 삶은 심각하게 제한되었다. 그러나 나머지 이라크 지역에서도 기독교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신앙을 가르치는 것에 조심하고 있다. 예를 들어 아이들이 학교에서, 특히 이슬람 과목 때, 신앙에 대해 이야기한다면, 가족은 신성 모독의 비난을 받을 위험이 있다.

## 공동체 영역

또한 공동체에서, 이슬람교에서 개종한 기독교인들이 공개적으로 자신의 신앙에 대해 이야기 하는 것은 너무 위험하다. 만약 그들의 신앙이 알려진다면 그들은 최고의 차별을 경험하게 된다. IS 통제 구역에서 더욱 악화되는데 모든 기독교들이 자신의 종교에 대해 침묵해야 한다. 이슬람에서 기독교로 개종한다는 것은 IS가 통제하는 지역뿐만 아니라 이라크 중부 및 남부 지역에서도 사형 집행장과 같다. IS 지역의 모든 여성들은 히잡을 착용하라고 강요 받는다. 바그다드와 바스라에서도 기독교 여성들은 히잡을 착용하라고 압력을 받는다. 이라크 북부(다후크, 자코 및 일부 아르빌 지역)에서도 기독교 여성들에게 히잡 착용을 요구하는 사회적 압력이 커지고 있다. 쿠르드족자치구역(KRG) 지역에서도 기독교인들은 자신들의 직업을 빼앗아간다고 생각하는 지역 무슬림에게 점점 압력을 받고 있다.

## 국가 영역

샤리아(Sharia; 이슬람 법 집행제도)는 이슬람교도들이 다른 종교로 개종하는 것을 금지하는 주요한 역할을 하는 법률이다. 따라서 무슬림에서 개종한 기독교인들은 개종한 것이 알려지면 국가 차원에서 차별을 받는다. 신분증에 기입하는 신앙을 바꿀 수 없으며 자녀도 자동으로 무슬림으로 등록된다. 쿠르드족자치구(KRG) 지역을 포함한 이라크 전역의 이슬람화는 2015년 종교 등록 및 2016년 10월 술 판매 금지 법의 시행에서도 볼 수 있다. 종교 등록 법은 아버지가 이슬람교로 개종하거나 어머니가 무슬림과 결혼하면 무슬림이 아닌 자녀를 무슬림으로 등록하게 한다. 이 법안은 종교적으로 소수인 사람들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통과되었다. 술 판매 금지 법이 시행된 지 며칠 후, 술을 팔 수 있는 레스토랑과 가게의 기독교인 소유주가 가게 앞에서 살해되었다. 이라크 북부의 쿠르드족은 주로 기독교 지역이나 마을에 사는 쿠르드족 무슬림이나 야지디족에게 땅을 팔아 사회를 '쿠르드화'하려는 시도를 한다. 이 '인구 역전 정책'은 쿠르드 지역의 주요 기독교 지역에서 수년간 계속되어왔다. 보다 최근의 발전으로 시아파들은 니네베 평야의 인구 통계를 변화 시키려 하고 있다. 이와 같이 이란이 기증하고 이슬람 공화국 최초의 영적 지도자, 호메이니(Khomeini) 이름의 학교가 바르텔라 지역에 문을 열었다.

교인들은 개종한 것이 알려지면 국가 차원에서 차별을 받는다. 신분증에 기입하는 신앙을 바꿀 수 없으며 자녀도 자동으로 무슬림으로 등록된다. 쿠르드족자치구(KRG) 지역을 포함한 이라크 전역의 이슬람화는 2015년 종교 등록 및 2016년 10월 술 판매 금지 법의 시행에서도 볼 수 있다. 종교 등록 법은 아버지가 이슬람교로 개종하거나 어머니가 무슬림과 결혼하면 무슬림이 아닌 자녀를 무슬림으로 등록하게 한다. 이 법안은 종교적으로 소수인 사람들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통과되었다. 술 판매 금지 법이 시행된 지 며칠 후, 술을 팔 수 있는 레스토랑과 가게의 기독교인 소유주가 가게 앞에서 살해되었다. 이라크 북부의 쿠르드족은 주로 기독교 지역이나 마을에 사는 쿠르드족 무슬림이나 야지디족에게 땅을 팔아 사회를 '쿠르드화'하려는 시도를 한다. 이 '인구 역전 정책'은 쿠르드 지역의 주요 기독교 지역에서 수년간 계속되어왔다. 보다 최근의 발전으로 시아파들은 니네베 평야의 인구 통계를 변화 시키려 하고 있다. 이와 같이 이란이 기증하고 이슬람 공화국 최초의 영적 지도자, 호메이니(Khomeini) 이름의 학교가 바르텔라 지역에 문을 열었다.

## 교회 영역

IS 통제하에 있는 지역에서는 교회와 수도원이 철거되거나 다른 목적(감옥, 이슬람 센터, 마구간)으로 사용되었다. IS가 조직하지 않은 공개 모임이 금지되었기 때문에 IS 통제 구역에서 교회 생활을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했다. 소수의 사람들은 숨어 있었고 어떤 사람들은 포로로 잡혀 있었지만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그 지역에서 도망쳤다. 대부분은 강제로 이슬람교로 개종하고 이슬람교 기도회에 참석해야 했다. 만약 거부하면 구타로 처벌 받았다. 교회 지도자들이 안전에 취약해, 사람들이 도망쳐 교회 리더가 부족해서 이라크 중부와 남부의 신앙적 성장이 방해 받고 있다. 몇





몇 교회 건물은 팔아야 했다. 전국적인 현상은 아니지만, 담임 목사나 성직자 같은 교회 지도자들은 여전히 바그다드에서 모범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을 겁주려는 이슬람 무장 세력에 의해 표적이 되고 살해당하고 있다.

### 폭력

대부분의 기독교인에 대한 폭력 행위는 주로 급진적인 이슬람 단체나 개인에 의해 일어났다. 반면, 무슬림에서 개종한 기독교인들은 대부분 가족으로부터 폭력에 시달리고 있다.

- 2016년 12월 23일 바그다드 근처에서 술을 파는 두 상점을 공격해 최소 3명의 기독교인이 사망하고 2명이 부상당했다. 지역 기독교인들은 크리스마스 직전의 시기와 이라크에서 술을 파는 기독교인이 유일하다 것을 고려해 의도적으로 기독교인을 공격했다고 해석한다.

- 2016년 11월 미망인 및 10대 자녀를 포함한 적어도 2명의 기독교인이 공식적으로 감옥에서 억류되었고 모술에서 강제로 이슬람교도가 되었다. 그들은 도市中에서 도망쳤다. WWL 2018 보고 기간 동안 모술에서 적어도 58명의 기독교인이 IS에 의해 붙잡혔으며 현재 아직 실종 상태이다. 그들이 죽었는지 납치되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 WWL 2018 보고 기간 동안, 개종으로 인해 가족에게 물리적으로 공격, 고문 당하거나 납치된 이슬람 배경을 지닌 기독교인 사건이 여러 차례 있었다.

- 2017년 5월 17일 중동의 한 매체에서 증오 발언의 명백한 예를 보고했다: 이라크에서 최고위 시아파 정부의 성직자 중 한 명은 기독교인, 유대인 및 다른 소수 종교인들이 이슬람교로 개종하고, 종교 세금(지즈야)을 내거나 살해되어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진술했다. 이라크 시아파의 수장 셰흐(Sheikh)는 또한 기독교인들을 ‘이교도들’과 ‘다신교도들’이라고 불렀고, 그

들에 대한 종교적 투쟁(jihad)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약 200명의 이라크 기독교 가정이 기독교인들에 대한 종파 간 폭력을 선동한 혐의로 소송을 제기했다.

- 2017년 마지막 분기에 니네베 평원에 있는 IS 통제 구역이 해방되기 전까지 다수의 기독교 소유 주택과 재산이 손상, 약탈되었다. 그러나 바그다드와 알 바스라, 알 나 시리야, 알 에마라, 바빌론, 알 쿠트와 같은 남부 도시에서는 기독교 소유 재산을 인수하는 일이 수년간 계속되고 있다. 이라크 의회의 기독교인 대표, 요셉 셀와(Joseph Slewa) 의원의 말에 따르면, 바그다드와 다른 지방의 시리아와 칼데아 기독교인들에게 속한 토지와 재산에 대해 약 3만 건의 압류가 이라크 내 일부 정당에 속한 민병대에 의해 인계되었다고 한다. 일부 단체들은 정부 기관의 업무와 권한을 이용하여 위조된 문서를 만들고 있다. 일부 폭력 조직은 부동산 사무실에서 일하며 기독교인이 소유한 재산을 강탈하기 위해 사기를 친다.



## 이라크(Iraq)의 상황을 이해하는 핵심 요소들

### 최근의 역사

제1차 세계 대전까지만 해도 이라크는 오스만 제국의 일부에 속했다. 1917년 영국이 이라크 영토 차지 후, 1932년 독립, 1958년 마침내 공화국이 되었으나 여러 명의 독재적인 지도자들의 통치를 받았다. 마지막 독재자였던 사담 후세인(Saddam Hussein)은 2003년 미국이 주도한 군사작전에 의해 실각되었다. 뒤따른 권력 공백 기간 동안, 수니파와 시아파 이슬람 간의 종파간 폭력 상태가 특히 심해졌고 기독교인들은 이 십자포화로 인해 꼼짝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졌다. 걸프 전쟁(1990-1991년)과 2003년 미국의 이라크 침공으로 인해 반 서구주의와 급진적인 이슬람 정서가 증가하면서 이라크 신자들에 대한 핍박이 증가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이라크를 떠나는 난민의 행렬이 시작되었는데, IS 출현과 2014년 6월 자칭 칼리프라 칭하는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그 수는 증가하였다.

### 종교적 상황

이라크는 무슬림 인구가 99퍼센트로 다양한 인종이 섞여있다. 아랍인구의 대다수가 시아파 무슬림들이며, 북쪽의 쿠르드족(Kurd)은 주로 수니파 무슬림들이다. 1920년 국제 연맹의 결정에 따라 이 세 집단은 처음으로 근대 국가 체계에 함께 들어서게 되었다. 그 후 '분할 통치' 원칙으로 인해 정권을 장악한 다른 지도자들이 집단간의 불신과 갈등을 불러 일으켰다. 이라크에서 현재 발생하고 있는 종파간 폭력사태는 주로 사담 후세인 이후 권력과 명성에 대한 경쟁에서 비롯되고 있다. 이라크 사회는 전체적으로 점점 이슬람화되어가고 있다. 알코올 판매는 제한되어 있고 몇몇 지역에서는 금지다. 알코올 판매 가게는 폭격 대상이 되어 살해당한 가게 주인들도 있다. 라마단 기간 동안에는 이라크 전 지역에 걸쳐 모든 가게들이 문을 닫는다. 여성에 대한 사회통제도 증가하고 있는데 두건으로 머리를 가리는 것과 라마단 준수를 들 수 있다. 바그다드에서는 기독교 여성 신자마저도 집 밖에서 안전하게 움직이기 위해 스스로를 가리도록 압박을 받고 있다.



IS가 칼리프를 선언한 지역에서는 상황이 점점 악화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여성은 니카브를 착용하여 완전하게 자신을 가려야만 한다.

### 정치적 상황

2016년 4월, 알 자지라 방송에서 다음과 같은 기사 보도를 내었다. “이라크의 소수 회교 수니파였던 사담 후세인의 지배와 미국의 간섭아래 개발된 정치 시스템을 중단시키기 위해 선거 후, 새 정부는 나라의 모든 지역 사회를 포함시켰다. 이러한 포함의 개념은 새 이라크 내각이 시아파, 수니파, 쿠르드족, 기독교인 및 투르크족과 야지디족의 구성비율에 따라 할당하는 수학 방정식 같은 상황을 만들게 되었다. 기독교인의 정치적 대표는 1-3퍼센트로 매우 낮으며 이들이 10개의 정당에 흩어져 있기 때문에 종종 의미가 없다. 사담후세인 시절 제한되었던 이슬람 정당은 정치에 입문하여 의회에서 다수를 구성했다. 종파간 갈등이 의회의 정치 대표들과 거리의 민병대에 의해 벌어지고 있다. 몇몇 시아파 정당은 이란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이란의 영향력이 강하다. IS를 상대로한 전투에서 이란의 지지는 또 하나의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이라크는 점점 이슬람화 되어 가고 있으며 마찬가지로 쿠르드 자치 정부가 자신들과 같은 행동을 하도록 압력을 가하고 있다. 특히 무슬림 출신 기독교 신자들은 이란의 첩보 기관으로부터 감시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 사회 경제적 상황

이라크는 에르빌(Erbil)에 기반을 두고 쿠르드 지역 정부(KRG)의 공식적인 지배를 받고 있는 북쪽의 반 자치적인 쿠르드 지역과 바그다드에 위치한 이라크 정부





의 지배를 받는 거대한 아랍지역으로 구분되어 있다. 쿠르드족과 아랍족은 각각 자신들의 언어와 문화가 있다. 남쪽에 위치한 바스라(Basra)의 유전과는 별도로 이라크 석유자원의 대부분은 키르쿠크(Kirkuk)와 모술(Mosul) 근처에서 발견되고 있는데 이들 지역은 쿠르드와 아랍의 경계 지역으로 이라크에서 가장 많은 폭력이 발생하는 지역들이다. 정부와 사회 전반에 걸쳐 부패가 만연되어 있다. 약하고 분열된 정부는 모든 분야에서 처벌 받지 않는 상황을 더욱 강화시키고 있어 벗어나기 어려운 악순환을 초래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장 큰 희생양은 기독교 신자들과 소수 민족이다. 물과 전기 같은 사회 서비스의 만성적인 결핍과 대량 실업으로 인해 사회적 불만이 높다. 부패는 나라의 발전과 민주주의의 과정을 방해하는 주요 요소 중 하나다. 게다가 거의 모든 이라크인들은 사담 후세인의 지배와 이란 이라크 전쟁, 걸프 전쟁, 제재와 미국 침공, 연속되는 종파간 갈등 및 IS가 저지른 만행들로 인해 정신적인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어린아이들의 경우 대다수가 학습 장애를 겪으며 영구적인 공포 상태를 경험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이 앞으로 이라크의 앞날에 어떻게 작용할지 큰 걱정이 되고 있다.

### 결론적 요약

이라크는 20세기 초에 와서야 국가라는 지위가 주어졌기 때문에 인종과 종교적인 다양성을 가진 여전히 어린 국가다. 종파간 갈등과 부패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 두 가지는 민주주의의 발전과 성장을 저해하는 주요 요소들이다. 처벌을 받지 않는 문제들은 이라크 기독교 신자들의 상황에 거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데, 이슬람의 엄격하고 폭력적인 특성으로 인해 다

른 종교를 허용하지 않는 급진적인 이슬람 집단의 증가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이라크의 전반적인 상황이 안정과는 꽤 멀어 보이지만 희망적인 상황도 있다. 모술(Mosul)지역에서 IS를 상대로 한 연합군의 군사작전이 시행된 시점(2017년 6월)이후 기독교인들이 마을로 돌아오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IS 패배 후 시아파 세력과 쿠르드족간의 전쟁이 촉발될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다.





1 북한  
25,400,000명  
300,000명의 기독교인



2 아프가니스탄  
34,200,000명  
수천명의 기독교인



3 소말리아  
11,400,000명  
수백명의 기독교인



4 수단  
42,200,000명  
2,000,000명의 기독교인



5 파키스탄  
197,000,000명  
3,900,000명의 기독교인



6 에리트레아  
5,500,000명  
2,500,000명의 기독교인



7 리비아  
6,400,000명  
42,000명의 기독교인



8 이라크  
39,000,000명  
258,000명의 기독교인



9 에티오피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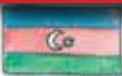


# 2018년 어린이 박해지도를 신청해주세요.

전화: 02)596-3171

메일: [odsk@opendoors.or.kr](mailto:odsk@opendoors.or.kr)

필요한 사이즈와 수량을 말씀해 주세요.  
국2절, A4사이즈



10 아제르바이잔  
9,900,000명  
319,000명의 기독교인



11 스리랑카  
20,900,000명  
1,300,000명의 기독교인



12 중국  
1400,000,000명  
97,200,000명의 기독교인



13 알제리  
41,000,000명  
68,500명의 기독교인



14 방글라데시  
148,000,000명  
866,000명의 기독교인



15 엘살바도르  
6,400,000명  
1,200,000명의 기독교인



16 멕시코  
133,000,000명  
128,000,000명의 기독교인



17 인도네시아 공화국  
263,500,000명  
31,900,000명의 기독교인



18 말리  
18,700,000명  
411,000명의 기독교인



19 말레시아 연방  
4,900,000명  
67,700명의 기독교인



20 중앙 아프리카 공화국  
5,000,000명  
3,800,000명의 기독교인



21 쿠웨이트  
4,100,000명  
425,000명의 기독교인

있으며, 그들은 본자가 아닙니다.



매년 오픈도어는 성경책과 기독교 문서를 접하기 어려운 나라들에 2백 5십만 권 이상의 성경책과 기독교 문서를 보내고 있습니다.



매년 오픈도어는 집과 가족들을 잃은 백 만명의 박해받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음식, 물, 집, 그리고 의약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매년 오픈도어는 백 만명 이상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박해를 이겨 낼 수 있는 지식과 힘, 기술들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1 이라크  
3,000만  
의 기독교인



9 이란 공화국  
28,100,000명  
수천명의 기독교인



10 이란  
81,000,000명  
800,000명의 기독교인



11 인도  
1,300,000,000명  
64,000,000명의 기독교인



12 사우디 아라비아  
32,750,000명  
1,400,000명의 기독교인



13 수단  
376,000명  
수천명의 기독교인



14 나이지리아  
192,000,000명  
99,000,000명의 기독교인



15 시리아  
19,000,000명  
794,000명의 기독교인



16 우즈베키스탄  
37,000,000명  
390,000명의 기독교인



17 이집트  
95,000,000명  
9,500,000명의 기독교인



18 베트남  
95,400,000명  
8,400,000명의 기독교인



19 투르크 메니스탄  
5,500,000명  
70,000명의 기독교인



20 라오스  
7,000,000명  
225,000명의 기독교인



21 요르단  
7,500,000명  
129,000명의 기독교인



22 파키스탄  
8,500,000명  
62,200명의 기독교인



23 말레이시아  
8,900,000명  
2,900,000명의 기독교인



24 미얀마  
54,800,000명  
4,400,000명의 기독교인



25 네팔  
29,200,000명  
1,200,000명의 기독교인



26 부탄  
751,000명  
20,000명의 기독교인



27 케냐  
48,500,000명  
39,400,000명의 기독교인



28 터키  
80,400,000명  
190,000명의 기독교인



29 루마니아  
11,500,000명  
23,800명의 기독교인



30 에티오피아  
140,300,000명  
62,000,000명의 기독교인



31 카자흐스탄  
18,000,000명  
4,600,000명의 기독교인



32 카타르  
2,300,000명  
212,000명의 기독교인



33 브루나이  
434,000명  
54,800명의 기독교인

## 미얀마에서 사라져가고 있는 언어를 되찾아 주는 오픈도어의 문맹 사역



현지 사역자인 마(Mar)는 그가 조우의 부족을 돕는 이유는 그들이 그들의 언어를 새로이 배우고, 그들의 정체성을 회복하며 그들의 문화를 사랑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해주었다.



지구상의 모든 나라들 대부분의 언어와 관습, 문화는 세대를 걸쳐서 전해지게 된다. 그러나 미얀마에 있는 작은 부족은 그렇지 못하다. 보안상의 이유로 부족 이름을 밝히지는 않지만 이 부족은 언어의 상실로 인해 부족의 정체성도 잃어갔다. 그러나 이번 오픈도어의 문맹사역 훈련을 통해서 잃어버린 언어가 다시 살아나고 있다. 그리고 나아가 언어는 새로운 삶을 가져오고 있다. 이 부족의 언어로 복음성가가 번역되고 있고, 기도하기로는 곧 성경 번역도 이루어지길 바라고 있다.

이 부족인 조우(Zaw)는 최근 문맹 교육을 통해서 그녀의 언어가 다시 살아나길 간절히 바라게 되었다. 사실 그녀의 집에서는 부족어를 사용하지 않고, 특히 버마 사람들과 있으면 부족어를 더 사용하지 않게 된다. 그렇지만 이번 문맹 교육을 하는 선생님은 조우의 부족 사람들을 사랑하고 이들을 존귀하게 여겨주면서 조우가 속한 지역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학교에서도 부족언어를 사용하도록 권장하면서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이 부족어로 말하게 될 것이라고 격려해주었다. 조우



가 속한 부족 사람들은 그들의 전통과 언어 그리고 종교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버마 사람의 대부분의 부족과 불교문화를 가진 사람들이 이 부족의 정체성을 조금씩 사라지게 만들었다. **조우는 문맹 훈련 수업에 참석하면서 그녀와 함께 이 수업을 듣는 부족 사람들과 함께 그들의 정체성과 언어의 회복이 필요함을 깨닫게 되었다. 현지 사역자인 마(Mar)는 그가 조우의 부족을 돕는 이유는 그들이 그들의 언어를 새로이 배우고, 그들의 정체성을 회복하며 그들의 문화를 사랑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해주었다.**

몇 년 전에 부족사람들은 오픈도어의 도움을 통해서 문서 의회를 만들었다. 그리고 의회는 부족어로 읽을 수 있는 책자를 만들어서 부족 사람들이 서로를 가르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이러한 일은 부족 사람들이 다시금 그들의 정체성, 언어 그리고 자신감을 되찾도록 도와주었다. 그리고 그들의 부족언어를 사람들에게 더 알리기 위해 노력하였고, 이 일로 사람들은 더욱 더 하나가 되고, 부족 사람들이 서로 간의 교제를 통해서 복음 또한 전해지게 되었다. 부족에서 한 불교신자인 **흐랏(Hlat)**은 이번 언어훈련을 통해 사라져가고 있던 본인의 부족언어가 되살아나고 특히 문학작품을 통해서 부족언어를 만날 수 있게 된 사실이 그에게 그의 부족을 다시금 사랑하도록 하는 불씨가 되었다고 이야기 해주었다. 그리고 이제 자기 스스로 부족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서 이야기 할 수 있으며, 한편으로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자기 부족 언어를 되살려주는 일에 동참하는 것이 참 감사한 일이며, 사역자들이 자기 부족 사람들을 사랑하는 증거가 되기에 충분하다고 이야기 해주었다. 그리고 앞으로도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일들에 동참하고 앞으로도 계속 감사를 표현하고 싶다고 하였다.

사역자인 **마(Mar)**는 문서 사역을 통해 이 부족을 돕는 또 다른 이유는 이 부족의 90%가 비 기독교인이며, 문서 사역이 이 부족에게 복음전도를 할 수 있는 열린 문이 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 해주었다. 훈련은 복음 전도에 불씨가 될 수 있으며, 이 불씨가 예수님의 빛으

로 이 부족 사람들을 밝힐 수 있을 것으로 여기기 때문이라고 이야기 해주었다. 훈련에 참가하는 56명의 사람 중에서 3명이 기독교인이다. **조우는** 이 훈련에 모인 사람들이 차별 받을 것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언어로 말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부족언어로 말하면, 버마 사람들이 그들을 차별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본인들 스스로도 자기들이 나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리고 부족에서는 기독교인들을 차별하기 때문에 그들의 언어로 더더욱 이야기 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조우는 기독교인들 차별 정책으로 기독교인들이 땅을 소유할 수 없다고 하였다. 성경 번역을 위한 통로인 문맹 훈련은 비 기독교인들과 90%가 되는 부족 사람들에게 구원의 빛을 밝혀주고 있다. 그리고 기독교인들에게는 모국어로 된 성경이 필요한 상황이다. 사역자인 **마(Mar)**는 이번 문맹 훈련을 받고 나면 이 사람들이 성경 번역을 할 수 있는 기술을 습득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오픈도어의 협력으로 200명의 젊은 사람들이 문맹 훈련을 받고 있으며 앞으로 이들이 조우와 흐랏이 사용하는 언어를 가르칠 교사가 될 것이다. 교사양성과정을 수려한 사람들은 공립학교에서 이 언어를 가르치는 교사가 될 수 있다. 2017년과 2018년 사이에 이 마을에서 이 언어를 가르칠 120명의 교사가 지원하였다.





## 너를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라!



그녀 앞에는 두 명의 친 자매가 서있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족을 보면 기쁠 텐데 나옴이는 그렇지 않았다. 그녀가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로 줄곧 이들은 가족이기보다는 그녀의 가슴을 찢는 핍박자였다.

**나옴이(Naomi)**는 말리(Mali)지역에서 40년 동안 주님을 섬기면서 조롱과 따돌림을 당하여온 무슬림 배경신자이다. 2012년 말리 지역에 이슬람 무장단체가 습격했을 때 이는 무슬림들의 박해가 얼마나 큰 것인지에 대한 본보기가 되는 사건이 일어났으며 이 상황

은 더욱 복잡해져 나옴이는 가족을 위해 더욱 안전한 지역으로 이사해야만 했다.

나옴이(52)가 그녀의 아파트 문을 열었을 때 그녀는 두려움으로 얼어붙었다. 그녀 앞에는 두 명의 친 자매가 서있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족을 보면 기쁠 텐



데 나옴이는 그렇지 않았다. 그녀가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로 줄곧 이들은 가족이기보다는 그녀의 가슴을 찢는 찔레자였다. 그러나 거기 그들이 손에 짐보따리를 들고 자신들을 받아 줄 것을 기대하는 듯 그렇게 서있었다. 그렇게 나옴이를 찔레하고서도 말이다. 나옴이와 그녀의 친자매들은 이집트의 무슬림 가족에서 태어났다. 그들의 아버지는 무슬림 중에서 인정받는 이맘(imam: 무슬림 지도자)이었고 1970년대에 이집트에서 팀북투(Timbuktu)로 이사하였다. 그가 이사한 이유는 오직 하나의 목적인 다와(da'awa: 이슬람교를 전파함) 때문이었다. 그는 무슬림 소책자들을 나눠주고 무슬림서적을 판매하거나 무슬림 설교를 하며 이슬람교를 전파하였다. 나옴이와 그녀의 친자매들은 모두 말리에서 태어났다.

나옴이가 8살 때 그녀의 아버지는 죽었다. “우리는 삼촌에게 입양되었고 저는 국립 기독교 학교에 다니게 되었습니다.” 무슬림 어린이들이 보다 좋은 교육을 위해 기독교 학교에 입학하는 일은 흔한 일이었다. “저는 기독교에 대한 모든 것이 그저 싫었습니다. 그래서 가족 중 아무도 제가 변하게 될 것이라고는 생각지 못했어요.” 그러나 나옴이가 더 많이 그리스도인들과 교류하면 할수록 더욱 그리스도에게 심취하게 되었다. 12살 때쯤 그녀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되었다. 삼촌 가족들은 그녀에게 매우 분노했고 그녀를 더 이상 환영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자신들이 나옴이를 기독교 학교에 보냈음에도 말이었다. 감사하게도 그녀는 한 선교사 가정의 돌봄을 받게 되었다. “그분들은 저를 마치 친딸 대하듯 해 줬어요. 그들로부터 그리스도에 대해 더욱 많이 알 수 있었고 믿음 속에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슬프게도 선교사 가정이 고국으로 돌아가는 상황이 생겼다. 그리고 나옴이는 어쩔 수 없이 가족에게 돌아가야만 했다. “그 당시는 정말 저에게는 매우 불행한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매일 가족에게 찔레를 당해야 했거든요.” 나옴이가 16살 때 벨기에에서 온 한 그리스도인 남성을 만나게 되었고 그와 결혼 약속을 하게 되었다. “저는 매우 기뻐고 이것이 새로운 나의 삶의 출발이겠거니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결혼을 했음에도 저는 고통스러운 날들을 보내야 했습니다. 제가 마을을 돌아다닐 때 마다 마을사람들

이 저를 카피르(kafir: 무슬림 신앙이 없는 사람을 이교도라고 비하하여 부르는 말) 라고 놀렸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은 참을 수 있었지만 가장 마음이 아픈 것은 가족으로부터 거부당하는 것이었습니다. 친 가족임에도 그들은 나를 볼 때 마다 나를 향해 침을 뱉으며 우리가 나눈 피를 저주 하였었습니다.” 어떻게 그러한 고통스러운 상황을 감내했나는 질문에 그녀는 신념에 찬 말투로 이렇게 대답했다. “그 당시 상황에서 어린이들이 부르는 찬송가 중에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라는 찬양이 매우 큰 힘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 찬양을 수도 없이 부르곤 했죠. 저의 가족은 제가 다시 이슬람교로 개종할 것을 끊임없이 강요했지만 그들이 저를 더욱 찔레하면 할수록 더욱 저는 주님께 매달리게 되어 주님과 가까워졌습니다.” (다음 호에 계속)



# 한국 오픈도어선교회 사역자 모집(전임)

전 세계 박해받는 교회와 성도들을 돕고 믿음 안에 굳세게 세우는 일에

헌신하여 사역하고 있는 한국 오픈도어선교회는 다음과 같이 북한선교에 헌신할 사역자를 구합니다.

## 모집인원

현장 선교사 (여성 사역부분 : 0명 / 일반 사역부분 : 0명)

- ▶ 주요업무 : 선교회에서 지정하는 현장사역을 수행 (개별 협의)
- ▶ 교회 및 노회(지방회)의 인정을 받는 선교사로서 결격사유가 없는 분
- ▶ 교육부 인가의 신학교에서 목회학 석사학위(M. div)를 받은 분
- ▶ 중국어 가능자 우대
- ▶ 여성사역부분의 경우 여성만 지원 가능하며 독신자 우대
- ▶ 고난받는 교회와 성도들에 대한 열정이 있으며, 특히 북한선교에 헌신된 자
- ▶ 연령 : 45세 미만 (예외 가능)

## 제출서류

- ▶ 이력서 및 신앙고백서
- ▶ 추천서 2부, 최종학력 증명서 및 관련증명서 사본 (면접 시 지참)

## 기관소개

- [www.opendoors.or.kr](http://www.opendoors.or.kr) 와 [www.opendoors.org](http://www.opendoors.org) 사이트 참조
- 사역 조건 - 국내근무 : 월~금, 09:00~18:00, 4대보험적용, 급여는 개별 협의  
- 선교 파견자는 선교회에서 사역비를 지원하며 구체적 내용은 개별 협의함
- 모집기한 : 구인시까지
- 문의처 : 이제나 간사 : 010-4668-6356 / 이메일: [info@opendoors.or.kr](mailto:info@opendoors.or.kr)
- 서류제출 : 이메일 [info@opendoors.or.kr](mailto:info@opendoors.or.kr) · 우 편 :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로 9길 10 (영성빌딩) 4층 한국오픈도어선교회

한국 오픈도어

## 전 세계 박해 받는 성도들과 함께해 주세요!

박해 순위 50개 국가의 총인구는 약 48억9천만 명,  
이중 기독교 인구는 약 6억5천만 명으로 추산됩니다.

이 기독교인들 중 33%인 약 2억1,500만 명이  
신앙 때문에 높은, 또는 극단적 수준으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세계 박해와 관련한  
강의나 설교를 원하시는 단체, 교회는  
아래로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강의 요청

홈페이지 [www.opendoors.or.kr](http://www.opendoors.or.kr) 에서 상단 '오픈도어참여' 클릭  
전화: 02)596-3171 메일: [odsk@opendoors.or.kr](mailto:odsk@opendoors.or.kr)



# 오픈도어 박해퍼즐



	①		②		④		⑤
			③				
⑥		⑦					
					⑩		
		⑧		⑨			
				⑪			



## ● 가로열쇠

-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고 선하고 의로운 교훈을 가르치겠다고 선포한 사람(삼상 12:23)
- 믿음의 조상 이삭의 아내이자, 야곱과 에서의 어머니(창 24:67, 25:21~26)
-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히 12:8)”
- 바울과 같이 복음을 위해 고난에 동참하면서, 연보에 힘쓴 교회의 이름(빌 4:14, 15~18)
- 1차 귀환 지도자로서 바벨론 포로지에서 귀환한 후 하나님의 단을 만들고 제사 제도를 회복한 사람(스 3:2~3)
-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블레셋 장수 이스비브놈을 죽인 용맹한 다윗의 용사(삼하 21:15~17, 23:18)
- 본래 소경이었지만, 예수님으로부터 눈 고침을 받은 사람(막 10:46~52)

## ● 세로열쇠

- “사랑하는 자들이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하셨을 즉 우리도 서로 ○○하는 것이 마땅하도대(요일 4:11)”
- 하나님과 우상 사이에 있는 백성에게 온전한 믿음을 강하게 외친 사람(왕상 18:21)
- 예수님 당시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자,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로 하여금 성결과 의로 두려움 없이 섬기게 하실 것(눅 1:75)임을 예언한 자
-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이요 또 이와 같이 ○○○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고전 7:22)”
-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고 인내함으로 인해 예수님께 칭찬받고 그 가진 믿음을 굳게 지키라고 명령을 받은 교회의 이름(계 3:7~13)
- 룻의 남편이자, 오벧의 아버지이며, 다윗 계보의 조상인 사람(룻 4:13, 21~22)
-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의 이름이며, 본명은 요셉이다. 착하고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였으며, 바울과 함께 1차 전도 여행을 떠났다(행 11:24, 13:3~4)

## ■ 지난호 정답 ■

	여	호	와	이	레		
	호				아	불	로
예	수			전			마
	아	골		도			백
		로	마	서			부
아	비	새			회	당	장
가		서	신	서		나	
서						귀	

## ■ 지난달 당첨자 ■

한규진, 김형미, 이유현님 (축하드립니다!)

메일로 정답과 상품을 받으실 휴대폰 번호를 적어 응모하세요.  
3명을 추천하여 문화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odsk@opendoors.or.kr (2018년 9월 10일까지)

# 지역별로 진행되는 오픈도어 지역 모임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 ▶ 오픈도어 지역 모임

- 후원자, 300 기도용사, 300 후원이사 등 누구나 관심을 가진 분들은 참여할 수 있습니다.
- 현장에서 일어나는 사역에 관한 생생한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 '이벤트 및 공지사항' 으로 접속하시면 쉽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문의

전화: 02)596-3171    메일: [odsk@opendoors.or.kr](mailto:odsk@opendoors.or.kr)    홈페이지: [opendoors.or.kr](http://opendoors.or.kr)

# 오픈도어가 새로운 사무실을 찾고 있습니다.

주위 좋은 공간을 알고 있는 분이나,  
무상으로 사무실을 제공해 주실 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 【문의】

전화 : 02)596-3171

메일 : [odsk@opendoors.or.kr](mailto:odsk@opendoors.or.kr)



# 2018, 시리아에 희망을

2018년 현재,  
총 1,310만 명의 시리아인이 위기에 처해 있으며,

시리아 안팎에서 총 580만 명의 어린이가  
우리의 도움을 절실하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1,310 만** 명이

우리의 도움을 절실하게 기다립니다

서울시 인구보다 많은 사람들이 내전으로 인한 극심한 고통 속에서 도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610 만** 명이

국내실향민이 되었습니다

리우데자네이루 시민 전체가 한꺼번에 집을 잃고 국내에서 떠도는 것과 같습니다

**298 만** 명의 난민이

포위되어 도움의 손길이 닿지 못합니다

바르셀로나 시민 전체가 포위되어 도움을 필요로 하는 것과 같습니다

**580 만** 명의 어린이가

심각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싱가폴 전체 인구보다 많은 수의 어린이가 난민이 되었습니다

보내주신 후원금은 시리아 난민 어린아이들을 위한 구호, 교육 및 훈련에 사용됩니다.

후원계좌: 우리은행 163-099071-02-101 김성태

서울시 성북구 안암로9길 10, 영성빌딩 4층

전화번호: 02-596-3171 팩스번호: 02-594-3171 이메일: [odsk@opendoors.or.kr](mailto:odsk@opendoors.or.kr)

# 오직 신앙 때문에 박해받는 사람들을 위한 나의 희망의 선물 2018

우리의 작은 실천이 한 사람의 희망이길 바라며...

성경 훈련	선물 1	아프리카의 박해 국가 어린이들에게 성경 전달	×	5,000원	=	원
	선물 2	시리아의 제자훈련 프로그램	×	70,000원	=	원
	선물 3	중동의 목회자 훈련 사역	×	150,000원	=	원
생존	선물 4	위험에 처한 무슬림 성도들을 위한 안전가옥 제공	×	100,000원	=	원
	선물 5	탈북자들을 위한 안전가옥 제공	×	50,000원	=	원
	선물 6	트라우마 치료를 위한 상담 사역	×	80,000원	=	원
여성	선물 7	박해 최전선에 있는 여성들을 위한 영육간의 돌봄 제공	×	30,000원	=	원
	선물 8	무슬림 국가에서 박해받는 크리스천 어린이들에게 신앙 교육	×	80,000원	=	원
어린이	선물 9	중앙아시아의 박해받는 크리스천 어린이들 신앙 교육	×	20,000원	=	원
	선물 10	박해 최상위 10개 국가 어린이들에게 기독교서적 전달	×	10,000원	=	원
난민	선물 11	중동의 크리스천 난민들에게 대피소와 구호품 제공	×	100,000원	=	원
	선물 12	한 사람의 난민의 훈련과 의료적 돌봄	×	40,000원	=	원
총 계					=	원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www.opendoors.or.kr](http://www.opendoors.or.kr)

**참여안내** 보내주신 헌금은 후원자분들의 뜻에 따라 각 선교지에 보내어집니다.

1. 전달하려는 선물에 표시하고 총 선물 금액을 계산합니다.
2. 총 선물 금액을 오픈도어 캠페인 계좌로 송금하시면 됩니다.  
[신한은행] 100-027-453994 (예금주: 한국오픈도어선교회)
3. 전화 (02-596-3171) 또는 이메일 (odsk@opendoors.or.kr)로 선물 신청 내역을 알려주세요.

